

# 광주시의회,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확대 국회에 요구

신정훈 행안위원장-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 간담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감사위 설치, 조례제정 확대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신설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

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은 필

요하다”며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수 조정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통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안위 및 정개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시·군·구에 상당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특별법

을 담겨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의회 역시 그 기능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 국회 처리 예산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채은지 부의장, 최지현 환경위원장, 박필순 산진위원장, 조석호 예결특위위원장, 흥기월·임미란·이명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치구의회에서는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

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승 북구의회 의장, 김현숙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성화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고영임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향후 통합 특별법을 다룰 국회 행안위의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국회 공정화와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 과정에서 시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与 지선 전략위원장에 황희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 6·3 지방선  
거 전략공천관  
리위원장에 황  
희 의원(사진)  
을 선임했다.

3선인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전문인(전문재인) 인사다.

전략공관위의 간사는 이연희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맡는다.

전략공관은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공천 방식이다.

민주당은 당현·당규에서 일정 비율까지는 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경우 경선이 원칙이나,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는 전략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 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현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른 이병진(경기 평택을)·신영래(전북 군산 김제부안갑) 전 의원의 지역구 등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우치동물원에 ‘판다’ 입식을”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접견을 갖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정광호 도당 부위원장, 신안군수 선거 출마 선언

‘민생 최우선’ 군정 비전삼아

그는 신안군의원과 신안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도서지역 현장을 누비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정 부위원장은 “비가 오면 잡기는 길, 배가 끊기면 멈춰서는 삶. 어업 피해 앞에 시 막막해지는 어민의 현실을 현장에서 보아왔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군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신안이 직면한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과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갈등, 섬 교통과 이동권 문제, 기후위기에 따른 김 양식과 어업 위기, 고

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공백을 제시했다.

그는 “찬반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며 “군민 동의와 공정한 보상, 투명한 결정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정 비전으로는 ‘민생 최우선 군정’을 내세웠다. 의료·복지·돌봄·교통·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실질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7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신안의 현실에 맞춘 현장 중심 돌봄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뉴욕서 K-수목 다양성·가능성 알렸다

전남도·뉴욕한국문화원 개최

‘뉴욕 뉴 잉크’ 특별전 성료

인류 보편문명 확장성 알려



뉴욕 수목 특별전

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개막식에는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현지 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시를 축하했으며,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교류 확대와 문화적 파급력을 대변해 소개했다.

윤재갑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과 스테파니 킴(김승민)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했으며, 이아남·한영섭·정광호·강운·설박(Sul Park)·구승윤·케이윤(Kay Yoon)·김상연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회화, 사진,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수목 예술이 지난 전통성과 동시대적 해석을 입체적으로 제시했다.

전시 기간 미국 동부 지역에 폭넓은 한파가 이어지는 악조건에서도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며, 한국 현대 수목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다. 이는 수목이 전통 회화 장르를 넘어 동시대 미술

접근에서 의미를 지닌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뉴욕

수목 특별전은 한국 수목미술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해외 전시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며 “전남도는 케이-수목의 세계화

를 위한 해외 특별전과 다양한 국제 전시

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6·3 지방선거 출판기념회 잇따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7일 오후 원도청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미래교육’ 비전 제시

장만채·장휘국 전 전남·광주 교육감 참석 ‘눈길’



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7일 오후 원도청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완도 미래, 군민과 함께 고민하겠다”

김신 출판기념회 성료 3000명 운집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7일 광양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남자의 일생’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광양의 미래발전 동력은 결국 사람”

정인화 시장, ‘그 남자의 일생’ 북콘서트 성료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7일 오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두 번째 저서 ‘김대중의 글로벌 미래교육’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남·광주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주철현·김문수·신정훈·민형배 국회의원, 전현배 전 법무부 장관, 김태균 전남도의장과 전남도의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를 연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전 광주교육감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에 도전장을 던졌던 문승태 전 순천대 부총장도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는 기존 출판기념회와 차별화된 구성으로 관심을 모았다. 저서에 담긴 김 교육감의 고민과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 방향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해 상영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향후 출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에는 AI 사회자가 등장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1일 나주 동신대학교, 28일 목포국제죽구센터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힘을 보탰다. 행사장에는 지역 주민 3000여명이 운집해 김 부의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행사 형식이었다. 통상적인 출판기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시간 연설 대신 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답 방식이 채택됐다.

김신 부의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는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완도군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라며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스뮤지엄’ 미술관 내에 있는 초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책 제목을 ‘그 남자의 일생’으로 정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로마를 방문했을 때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화장했던 장소에 시민들이 지금까지 꽃을 바쳐오고 있는 묵적당도 기술하고 있으며 ‘구봉산권 종합관광’ 개발에 대한 자신의 개발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에 발간한 책은 시민과 깊이 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광양의 발전 동력을 결코 사람이다”고 말했다.

저자는 지난해 9월 국제자매도시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방문했을 때 ‘렌토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